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9, No. 2, pp. 115~129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 동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1989~2006)를 중심으로-

장상옥*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Trends of Housing Education Researches in Korea and Japan from 1989 to 2006
-Focused o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Jang, Sang-Oc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rends of education researches on the housing in Korea and Japan. It was based o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e inquiry, 49 articles(20 from Korea and 29 from Japan) were collected from 1989 to 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e articles of housing education was not quantitatively enough compared to the other fields in Korean and Japan. Second, regarding research fields, there were lots of articles about 'the perception of housing education' and 'teaching-learning method & teaching materials'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Japan, articles about 'teaching-learning method & teaching materials' and 'the evaluation of education' were major fields. Third, the major research topic was 'overall of the housing education' in Korea, while 'living space' in Japan. Fourth, the major data collecting method were questionnaire surveys and experiments, mostly targeting students and teachers from junior and high school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s and means were most often used for data analyses.

1) 교신저자 : 장상옥(sojang@nongae.gsnu.ac.kr)

주제어(Key Words) : 주거교육(housing education), 연구동향(trends of research), 한국가정과교 육학회지(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일본가정과교 육학회지(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Ⅰ. 서 론

오늘날 주거를 둘러싼 자연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로 개인이나 가족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갖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를테면 새집증후군과 같은 주거환경 문제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교육이 더 한층 필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교육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거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경향이었다.

가정과교육에서 주거교육의 전반적인 연구 흐름은 가정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1989년 창간 이후에 가정과교육에 관한 연구를 주로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가정과교육의 연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윤인경 외 2인(2005)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연구 동향 분석에서 주생활 단원이나 영역의 연구는 교과교육학, 가족학, 가정관리, 소비생활 등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우리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주거교육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

그 동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을 보면 한국가정과교육 연구 동향(윤인경, 2000; 윤인경 외 2인, 2005), 가정과교육의 질적 연구 동향(류상희, 2001), 소비자교육의 연구 동향(김나연 · 이기춘, 2005)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이나 질적 연구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영역별로는 소비자교육의 연구동향이 있을 뿐 주거교육의 연구 동향 파악은 가정과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바람직한 주거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거교육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역사적 배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행이나 현재 중학교 기술 · 가정을 시행하고 있는(박순자 · 신상옥, 2000)[1] 일본과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는 1959년에 창립되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므로 연구의 축적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주거교육 연구 동향이 보다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창간 이후 지금까지 18년간의 주거교육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같은 시기의 일본 가정과교육학회지의 연구경향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우리 주거교육 연구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 기간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06년까지이며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는 한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같은 기간을 설정하여 각각 총 18년간의 주거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연구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연도별 연구 상황,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서연구법으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논문은 가정과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 박순자, 신상옥(2000)은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 · 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비교 고찰한 연구에서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시행하였으나, 배경과 변천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표 1. 연구영역 분류

연구영역	내용 예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변천, 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수학습모형 개발·적용, 수업관련자료 개발, 지도안개발
교육내용	주거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교과인식	요구, 유용성, 필요도, 인식 등 연구
교육평가	실기평가, 수행평가방법, 학생의 수업달성도평가, 교육프로그램 평가
학교시설·설비	학교 시설, 가정실 등 시설, 설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1989년 창간 이후부터 1993년까지는 1년에 1권씩 발행되었으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2권씩,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3권씩,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매년 4권씩 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 대상 논문은 창간호인 1권 1호(1989년)부터 18권 4호(2006년)까지 총 42권이며, 발표된 논문의 수는 373편인데 이 중 주거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20편으로 전체 게재된 논문 중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는 1959년에 6월에 일본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되어,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년 3권씩 발행되었고, 2000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매년 4권씩 발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 대상 논문은 32권 1호(1989년)부터 49권 3호(2006년)까지 총 57권이며, 총 490편의 논문 중 주거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29편으로 전체 게재된 논문 중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지 논문 중 주거교육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양국 모두 5%대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주거교육 관련 논문의 선정은 게재된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주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으로, 그 전체 내용을 읽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으로 결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논문의 제목에 주거, 주생활, 주거공간(주공간), 시설, 설비, 환경이 키워드로 포함된 논문을 추출하였다.

2. 분석 기준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내용분석 기준은 양정혜와 신상옥(2003), 윤인경 외 2인(2005), 桑畑美沙子와 石橋満里子(2000), 妹尾理子와 平正なか(2004)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학회지의 발행현황, 연구영역, 연구주제·단원·영역, 연구방법, 연구대상, 분석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연구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학교시설·설비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표 1). 한 편의 논문에서 연구영역의 구분이 한 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중심적인 연구영역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병행되는 연구영역은 ( ) 안에 논문의 편 수를 표시하여 전체 합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 ) 안의 숫자는 중복되는 논문의 편 수이다.

연구주제·단원·영역은 기술·가정 교과의 주생활단원을 기초로,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지의 논문주제를 검토하여 주생활단원전반, 주거공간, 주거환경, 주거관리, 학교시설·설비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내용분석연구로 구분하였는데 두 가지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 ) 안에 중복된 논문 편수를 기재하였다.

분석방법은 전체 논문에 사용된 분석기법의 검토 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 사후검증, 상관관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상자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의 단일대상과 학생과 교사 등의 복합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최종 분석대상자의 수는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500명, 501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부 항목에 다중응답분석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발행 현황

한국의 경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주거교육 관련 논문은 1989년 창간호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총 20편인데, 18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1.1편이 게재되었다. 연도별 논문편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 창간호에 1편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1993년, 1994년, 1996년, 1999년, 2001년, 2006년에 각각 1편씩 게재되었고, 2000년, 2001년, 2003년~2005년까지는 각각 2편씩이며, 1995년은 3편이 게재되어 가장 많았다. 1990년대 초반과 후반에는 관련 논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1~2편씩 게재되어 주거교육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의 주거관련 논문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총 29편이 발표되어 18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1.6편이 게재된 셈이다. 1960년에 창간된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의 주거관련 논문은 1990년, 2001년, 2005년을 제외하고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1편, 많게는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특히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 동안 34.5%(10편)가 발표되어 양적으로 많은데, 이는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가정과교육학회의 긴 역사에 비하여 주거교육 관련 연구는 상당히 적다고 하겠다.

한국과 일본에서 18년 동안 발간된 주거교육 연구 논문 편 수는 두 나라 모두 양적으로 많지 않았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윤인경 외 2인(2005)의 연구에서도 교과교육학, 가족학, 가정관리, 소비생활 연구에 비하여 주생활 단원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래 주거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교육이 요청되며 주거 관련 연구가 확대되어야겠다. 한편, 논문 편수만을 단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과교육학회지의 창간이 일본에 비하여 약 30년 정도 늦어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해 2~3편이 시리즈로 연구된 논문이 많았던 것도 양적 팽창에 기여한 요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 창립 시기의 차이를 감안해본다면, 양국 논문의 양적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표 2. 시기별 주거교육 논문 편수 및 백분율

국가 / 시기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1989년~1994년	3	15.0	11	38.0
1995년~2000년	7	35.0	9	31.0
2001년~2006년	10	50.0	9	31.0
계	20	100.0	29	100.0

한국과 일본의 논문 편 수를 1989년~1994년, 1995년~2000년, 2001년~2006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 보면(표2), 한국의 경우는 각각 15%, 35%, 50%로 해가 갈수록 논문의 양이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37.9%, 31%, 31%로 각 시기별 논문의 수는 거의 일정한 편이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한국의 경우 10편(50%)이 발표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9편(31%)이 발표되어 상대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에서 주거교육 연구가 더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영역별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 분류한 주거관련 연구 영역은 6개 영역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내용, 교과인식, 교육평가, 학교시설·설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3).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가 40%(8편)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연구가 25%(5편)를 차지하였다.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를 다룬 연구에서는 대부분(4편)이 교육평가를 병행하고 있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는 각각 15%(3편), 10%(2편)의 수준으로 연구되었다. 그 외, 학교시설·설비와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각각 1편씩 나타나 연구비율이 낮은 영역이었다.

연도에 따른 연구영역의 동향을 보면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었고,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는 1996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구는 1995년과 2003년에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가 37.9%(11편)로 가장 많아 매우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인데, 수업지도안 등의 개발 후에 교육 효과의 측정을 병행한 것이 이 중에 4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교육평가 24.1%(7편), 학교시설·설비 17.2%(5편)에 대한 연구 비율이 높았다. 교육내용과 교과인식은 각각 3편(10.3%)이었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연구영역 중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와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연구영역에 비해 활발한 이유는 주거영역 교육의 어려움 인식과 이에 대처하려는 측면에서 많아졌다고 생각된다. 즉, 중학교에서는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 결부한 교재개발이 다른 영역에 비해 늦고, 이론적인 측면이 많아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高木幸子·嶋村洋子, 2003) 고등학교에서 주거영역은 교육내용이 물리적으로 커서 이를 교실내로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지도가 어렵다(黒光貴峰·關川千尋, 2006)는 점 등의 지적에서 학생 측에게는 보다 더 흥미로우면서 이해가 용이하고, 교사 측에게는 제한된 시수 안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되도록 교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연도에 따른 연구영역의 동향을 보면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와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전반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인식과 학교시설·설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다.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18년간의 연구영역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40.0%)와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25.0%)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37.9%)와 교육평가(24.1%)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에 병행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는 편이나, 일본에서는 교재개발과 개발된 교재에 대한 평가가 2~3편의 각기 다른 논문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높아 교육평가 연구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두 나라 모두 유사한 비율이다. 학교시설·설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실이 연구대상인데 한국에서는 중학교 가정실의 실내환경과 활용실태를 살펴본 연구(소복례·조재순, 2004)가 1편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일본 가사실습실 구성에 영향을 미친 미국 가사실습실의 계보를 밝히려는 연구(5편)가 주를 이루었다.

표 3. 연구영역

국가 / 연구영역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교육과정 및 교과서	2	10.0	0	0.0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5	25.0	11	37.9
교육내용	3	15.0	3	10.4
교과인식	8	40.0	3	10.4
교육평가	1(4)	5.0	7(4)	24.1
학교시설·설비	1	5.0	5	5.0
계	20	100.0	29	100.0

( )의 숫자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논문에서 병행하여 연구된 편수로 중복됨

3. 연구주제·단원의 연구 동향

연구주제·단원은 양국의 연구대상 논문을 검토하여 주생활단원 전반, 주거공간, 주거환경, 주거관리, 학교건물(가정실)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표 4).

한국의 경우 가장 많이 다룬 주제·단원은 주생활단원 전반이 55.0%(11편)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영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교과인식 연구에서 대부분 주생활단원 전반에 대한 인식, 활용도, 요구도 등을 살펴본 연구[2]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은 25.0%(5편)를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영역은 실내밝기와 온습도조절을 위

2) 유미숙·박선희(1989), 이은순·조재순(1993), 이강분·최목화(1994), 권혁화·조재순(1995), 최창숙·조재순(1995), 신용해·조재순(1999), 진상윤·곽정숙(2004), 이희준·조재순(2005)의 연구가 있다.

한 수업지도안 개발 연구(이계행 · 조재순, 1996)와 환경친화적 주거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이선희 · 조재순, 2005),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인성특성을 관련시킨 연구(김진영 · 곽경숙, 2001), 청소년의 근린환경 이용과 불건전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김윤자 · 박선희, 2000), 중학생의 근린환경 시설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김은정 · 조재순, 2002) 등 실내외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주거를 둘러싼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거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증가되었다고 생각되며 이의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이어서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는 15.0%(3편)로 나타났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포함한 LT협동학습 수업 지도안의 개발과 수업효과를 검증한 연구(김영미 · 조재순, 2001)가 있고, 고등학교의 주거공간구미기 단원의 WBI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업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김순안 · 조재순, 2003) 등이 진행되었다. 학교건물은 가정실에 대한 연구가 1편 있으나 주거관리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전혀 없었다. 연도에 따른 연구주제 · 단원을 보면 주생활단원전반은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주거공간과 주거환경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연구되고 있는 주제 · 단원이다.

표 4. 연구주제 · 단원

국가 / 연구주제 · 단원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주생활단원전반	11	55.0	7	24.1
주거공간	3	15.0	9	31.1
주거환경	5	25.0	3	10.4
주거관리	0	0.0	5	17.2
학교건물	1	5.0	5	17.2
계	20	100.0	29	100.0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이 다룬 단원은 주거공간이 31.1%(9편) 이었다. 주거공간을 생활자의 경험과 관련시켜 파악하거나, 중 · 소규모 주택의 주거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재를 개발한 연구가 많았다(표 5). 다음으로 주생활 단원 전반은 24.1%(7편)로 많았는데, 주생활단원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거나(分校淑子 외 2인, 1997) 주생활단원전반에 대한 수업안의 개발과 수업평가에 대한 연구(綿引伴子 외 2인, 1997; 山岸雅子 외 2인, 1998)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주거관리와 학교건물에 대한 연구는 각각 17.2%(5편)씩 있었다. 주거관리에 대한 연구는 주거의 안전(久 保 加津代, 1994), 방재(防災)에 대한 수업교재 연구(田中 洋子 외 3인, 2002)와 자신 주변의 적절한 청소작업 및 실내환경 정비 등과 관련시킨 연구(山田 美由紀 · 高 木 貴美子, 1994), 가정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山田 美由紀 · 高 木 貴美子, 1996)가 있다. 학교건물에서는 일본의 가사실습실에 영향을 준 미국의 가사실습실 역사를 파악한 연구가 시리즈로 게재되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10.4%(3편)이었는데,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쾌적한 주환경의 실현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마을 만들기[3] 수업개발과 개발된 수업의 평가와 여러 학교에의 적용을 위한 연구(山岸雅子 외 2인, 2003; 分校淑子 외 2인, 2003; 山岸雅子 외 2인, 2004)가 시리즈로 진행되었다. 연도에 따른 연구주제 · 단원을 보면 주생활단원전반은 1989년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이며, 주거공간은 1990년대 초와 말에 이루어졌고, 다시 2000년대 이후에도 연구되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보였다. 한편, 주거관리는 1990년 중반, 2000년대 초반에, 학교시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구되었고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주제 · 단원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는 주생활 단원 전반을 대상으로 주생활 단원의 인식에 대해 연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 및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크다. 한편, 주거관리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이루어지는 점이 대조된다. 환경문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

3) 일본의 마을 만들기(まちつくり)는 70년대 초 주민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 및 자연환경 보전 운동을 시작하면서 추진된 주민 주도의 도시운동으로 통상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틀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진미윤 외 2인, 2007). 이와 유사한 미국 클린턴 정부(1998)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Livable Community)' 정책은 저렴한 주택공급과 Aging in Place를 골자로 하고 있다.

표 5. 연구주제·단원을 주거공간으로 한 연구(일본)

연도	논문제목	연구내용
1992	兒童の生活經驗が住居觀形成に及ぼす影響	주공간의 주관적파악과 생활경험과의 관련을 발달과정 중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자 함
1993	學校教育にお住居領域の教材開發について(1)-空間構成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開發-	소규모주택 평면을 이용한 주거방식연습 시뮬레이션 교재의 고등학교 주거영역 교재로서의 타당성 검토
1993	學校教育にお住居領域の教材開發について(2)-開發教材の妥當性の檢討	연구(1)에서 개발된 교재를 고등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재로서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
1999	二次元イメジ擴散法による[家庭生活]領域の學習効果(1)-自己の住空間認識-	「가정생활」 영역에서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활장소를 매체로 한 수업 「주공간과 나」를 2차원 이미지 확산법을 이용하여 파악
1999	二次元イメジ擴散法による[家庭生活]領域の學習効果(2)-住空間を媒體とした生徒と家族員との相互理解による自己認識-	학생상호의 토론을 통하여 推定 皮이해도와 이해도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의한 학습 효과 파악
2000	中規模住宅の住み方式演習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 開發について(1)-開發教材組み立てとそのフィールド實態-	중규모주택 주거방식 연습 시뮬레이션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실시하여,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고찰
2000	中規模住宅の住み方式演習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 開發について(2):演習結果を通してみた当教材の特性と練習成果決定要因	연습실시자가 수용하는 방식과 완성도를 비교 검토하여, 교재 특성과 연습성과 결정요인을 밝히고, 당 교재의 효과적 이용방법에 대해 고찰
2006	學校教育住居領域教材開發(1)-コンピュータを使った住み方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組み立て-	「소규모주택의 주거방법 연습교재」를 토대로 컴퓨터를 도입하여 교재개발을 시도
2006	學校教育住居領域教材開發(2)-コンピュータを使った住み方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有效性の檢討-	「주거분야에서의 컴퓨터 도입교재 소안」에 대해 실제의 고교 교육현장에서 실시하여,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증

방식이 요구되는 오늘날 주거관리 교육 연구가 더욱 필요하겠다. 주거환경 연구에서 일본은 지역사회로 관심을 돌리는 마을 만들기 수업을 학생들의 조사를 통한 경험적 학습으로 연결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 말 정책 대안으로 채택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및 지역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주거교육이 요망된다. 학교 건물 연구에서 한국은 가사실습실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일본 가사실습실의 모델로 된 구미와 미국의 가사실습실의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짚어본 연구가 있었다.

4. 연구방법의 연구 동향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내용분석 연구로 구분하였다(표 6).

한국의 경우 조사연구가 60.0%(12편)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교과인식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 조사연구의 경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직접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교사 대상인 경우는 우편조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실험연구가 25.0%(5편)로 많았는데 이 경우는 학습 지도안 개발이나, 학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실험연구방법을 적용한 모든 연구는 교육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병행하고(5편) 있었다. 내용분석 연구는 2편으로 고등학교 가정 교사용 지도서의 주생활영역의 내용을 비교하거나(최창숙·조재순, 199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주생활단원 영역을 분석한 연구(이정규 외 5인, 2003)가 있었다. 이외에 문헌연구는 가장 적은 1편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44.8%) 실험연구(34.5%)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이외에 아동의 생활경험과 주거공간의 관련을 파악하기 위해 집 그림을 그리게 하여 분석한 회화(繪畵)조사가 포함된 연구(長 澤 由喜子, 1992)가 흥미롭다. 조사연구는 교과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교육평가 등의 연구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었다. 실험연구에서

는 학생들의 수업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그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赤崎眞弓, 1999a)도 적용되었다. 문헌 연구는 20.7%로 일본 가사실습실의 계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가 있었으며, 내용분석 연구는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6. 연구방법

국가 / 연구방법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조사연구	12(5)	60.0	13(3)	44.8
실험연구	5	25.0	10	34.5
문헌연구	1	5.0	6	20.7
내용분석연구	2	10.0	0	0.0
계	20	100.0	29	100.0

( )의 숫자는 다른 연구방법과 중복된 논문 편수임

한국과 일본의 연구방법의 연구동향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 모두 주거교육 관련연구에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시킨 연구가 8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조사연구의 비율이 실험연구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일본은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비율의 차이가 많지 않은 편이다. 두 나라 모두 주거교육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주로 적용시키면서 일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연구대상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대상자와 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7).

먼저 논문의 연구대상자가 있는 논문을 살펴보면 한국은 총 20편 중 17편이 연구대상자가 있었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주로 중·고등학생과 교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사, 학생과 교사의 순이었다.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9편으로, 중학생 단독이 29.4%(5편)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생 단독, 중학교 교사 단독이 각각 23.4%(4편)씩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대상을 단일 대상이 아닌 복합대상으로 구성한 연구는 총 3편으로 중학생과 교사가 2편,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총 29편 중 23편의 논문에서 연구대상자가 있었다. 학생 단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19편), 교사단독, 학생과 교사 복합은 각각 2편씩 있었다.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고등학생이 34.8%(8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이 17.4%(4편), 초등학생 13.1%(3편), 초등학생+중학생(8.7%), 고등학생+대학생(8.7%)의 순이었다. 교사인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4.3%(1편) 있었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1편,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이 있었다. 주거교육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범위가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은 일본의 가정과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 고등학교로 연계되어(박순자·신상옥, 2000)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 연구대상

연구주제·단원 / 국가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학생	초등학생	0	0.0	3	13.1
	중학생	5	29.4	4	17.4
	고등학생	4	23.5	8	34.8
	초등학생+중학생	0	0.0	2	8.7
	고등학생+대학생	0	0.0	2	8.7
교사	중학교 교사	4	23.5	0	0.0
	고등학교 교사	1	5.9	1	4.3
	초+중+고교 교사	0	0.0	1	4.3
학생+교사	중학생+교사	2	11.8	0	0.0
	고등학생+교사	1	5.9	2	8.7
계		17	100.0	23	100.0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대상은 모두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나, 한국의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주 연구대상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학생이며, 이에 더하여 초등학생과 대학생도 연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

우는 학습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며, 대학생의 경우는 교재개발과 교육평가를 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서 선정된 경우이다. 교사대상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그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한국에서는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고,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아 대조가 되었는데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중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도 보이지 않았으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모두 조사한 연구(1편)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규모는 분석에 실제 사용된 대상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한국의 경우는 적게는 81명에서 많게는 534명까지이다. 101명에서 200명 이하가 가장 많은 35.3%(6편)이었고, 이어서 201명~300명과 501명 이상은 각각 17.6%(3편)씩 나타났다. 100명 이하와 401명~500명은 2편이었고, 301명~400명은 가장 적어서 1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규모를 논문의 연구방법과 관련지어 보면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현장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한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자가 대략 100명 내외로 적은 규모인 반면, 연구대상이 학생인 조사연구의 논문은 500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게 된다. 한편,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조사방법이 주로 우편조사로 실시되어 설문지 배부수보다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적게는 150명부터 많게는 3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연구대상자 규모

국가 / 연구주제·단원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100명 이하	2	11.8	2	8.7
101명~200명	6	35.3	6	26.1
201명~300명	3	17.6	7	30.4
301명~400명	1	5.9	3	13.0
401명~500명	2	11.8	0	0.0
501명 이상	3	17.6	5	21.8
계	17	100.0	23	100.0

일본의 경우는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4,307명까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연구대상이 201명~300명은 30.4%(7편)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1명~200명(26.1%)이다. 501명 이상은 21.8%(5편)로 700여명 대와 전국의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4,000명 이상의 거대 규모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규모는 한국과 일본 모두 300명대 이하의 연구가 대체로 많은 편이었으나,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분석집단의 크기가 매우 큰 편이었다.

6. 분석방법의 연구 동향

자료의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교차분석, t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요인분석, 회귀분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하나만 채택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적용하고 있어 각 분석방법 별로 살펴보고, 논문에 적용 시킨 분석방법의 개수를 알아보았다(표9, 표10).

먼저 한국의 경우, 자료분석에 통계기법을 적용한 논문수는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계행과 조재순(1996)의 '수업지도안 개발' 1편을 제외한 19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은 평균이 100%(19편)로 모든 논문에 적용되었으며, 빈도는 94.7%(18편)를 차지하였고, 백분율은 84.2%(16편)로 나타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의 기술통계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t 검증은 68.4%로 나타나 상당수의 논문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분석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생활단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표준편차는 52.6%, 상관관계와 분산분석은 각각 36.8%, 교차분석과 사후검증은 각각 26.3%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는 분산분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는 반드시 사후검증이 적용되었는데 모두 Scheffe의 사후검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은 2편의 논문에서 적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은 1편의 논문에만 적용되어 사용비율이 낮은 통계기법 이었다. 요인분석이 적용된 논문은 권혁화와 조재순(1995)의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주생활 지도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알기 위해 주생활 단원 지도내용 31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적용한 연

구가 있다. 회귀분석은 김윤자와 박선희(2000)와 김은정과 조재순(2002)의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두 연구 모두 청소년의 근린환경 이용과 관련된 연구이었다. 김윤자와 박선희(2000)는 학교주변의 유해시설 정도와 학생들의 이용빈도,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김은정과 조재순(2002)은 중학생의 근린여가시설 이용도, 충분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자료분석에 통계기법을 적용한 논문의 수는 총 22편으로 나머지 7편은 통계기법을 적용시키지 않아 22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많이 적용된 기법은 백분율이 86.4%(19편)이었으며, 이어서 빈도는 63.6%(14편)이었다. 교차분석은 54.5%의 논문에서, 평균은 45.5%의 논문에서 적용시키고 있다. 한편 t 검증과 표준편차는 각각 22.7%(5편)의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은 각각 13.6%(3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분산분석과 요인분석은 각각 9.1%(2편)의 논문에서 보이고 있었는데 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증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었다.

요인분석은 高部和子 외 7인(1992)이 초등학교 가정과의 주거와 가족 영역에서 학습기능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적용한 논문은 木谷康子 외 2인(1993)이 주거영역 교재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의 득점율과 과제에 소요된 시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關川千尋과 速水多佳子(2000)은 중규모주택의 주거방식 연습 시뮬레이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습 실시자가 받아들이는 방식과 완성도를 검토하고 교재의 특성과 연습성과 결정 요인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분석방법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 모두 기술통계를 가장 많이 적용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한국의 경우는 빈도와 백분율을 같이 제시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백분율만을 제시한 논문이 많은 점이 차이점이었다. 또한 분산분석은 한국은 유의차가 나타난 집단에 대해 사후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분산분석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더라도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의 적용 비율은 두 나라 모두 낮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통계기법 이었는데, 더욱 정교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통계기법이 적용되어야겠다.

표 9. 분석방법

국가 / 연구주제·단원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빈도	18	94.7	14	63.6
백분율	16	84.2	19	86.4
평균	19	100.0	10	45.5
표준편차	10	52.6	5	22.7
교차분석	5	26.3	12	54.5
상관관계	7	36.8	3	13.6
t 검증	13	68.4	5	22.7
분산분석	7	36.8	2	9.1
사후검증	5	26.3	0	0
요인분석	1	5.3	2	9.1
회귀분석	2	10.5	3	13.6
계*	103	100.0	76	100.0

* 계는 다중응답분석을 적용하여 전체 논문의 편수가 아니며 분석방법의 개수임

다음으로 각 논문에 적용된 통계기법의 총 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적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9가지까지로 나타났는데, 3가지의 통계기법을 사용한 논문은 26.3%(5편)이었고, 5가지를 적용시킨 논문은 21.0%(4편)이었고, 7, 8가지의 기법은 각각 3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4가지는 두 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6, 9가지는 각각 1편의 논문에 적용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적용된 통계 기법의 총 수는 적게는 1가지에서 8가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적용된 개수는 3가지로 36.4%(8편)의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2가지는 22.8%(5편)이며, 1, 4, 5 가지를 적용한 논문은 각각 9.1%(2편)씩 나타나고, 6~8가지를 적용한 논문 역시 각각 1편씩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3가지의 통계기법을 적용시킨 논문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기법의 적용 개수는 대체로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다. 한국에서는 4개~6개, 7개~9개가 각각 36.8%로 많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는 1개~3개를 적용

시킨 논문이 63.3%를 차지하여 약 2/3 가까운 논문이 3개 이내의 통계기법을 적용시켰다.

표 10.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의 개수

국가 / 통계기법 개수	한국		일본	
	편 수	%	편 수	%
1개~3개	5	26.4	15	68.3
4개~6개	7	36.8	5	22.7
7개~9개	7	36.8	2	9.0
계	19	100.0	22	100.0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창간 시점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18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지에서 주거교육 연구는 전체적으로 5%대로 다른 연구영역에 비하여 적은 편이었다. 논문 편수는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하나의 연구주제를 두 세편의 시리즈로 게재한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학회의 40여년의 창립 시차를 감안하면 양국 논문의 양적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연도에 따른 논문의 양적 변화는 한국은 2001년 이후에 전체 논문의 50% 정도가 발표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약 30%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한국의 주거교육 연구가 더 활발해진 경향이었다. 최근의 주거를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학습자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주거 교육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겠다.

둘째, 연구영역의 동향을 보면 한국에서는 교과인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는 1/4정도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와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에 병행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는 경향이나, 일본에서는 교재개발과 개발된 교재에 대한 평가가 2~3편의 각기 다른 논문으로 구성되어 교육평가 연구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두 나라 모두 유사한 비율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전공 학회지에 게재되어 그 비율이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공 학회지의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된다면 교육내용에 대한 동향 파악에 참고가 될 것이다. 학교시설·설비에 대한 연구는 가정실이 연구대상으로 한국에 비하여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정과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 및 교육평가에 대한 주거교육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그러므로 학생 측에게는 보다 더 흥미로우면서 이해가 용이하고, 교사 측에게는 제한된 시수 안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되도록 교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겠다.

셋째, 연구주제·단원의 동향을 보면 한국에서는 주생활 단원 전반을 대상으로 단원의 인식에 대해 연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 및 교육평가 대한 연구의 비중이 컸다. 한편, 주거관리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이루어지는 점이 대조된다. 학교건물 연구에서 한국은 가정실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일본 가사실습실의 모델로 된 구미와 미국의 가사실습실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연구경향이었다. 우리의 경우 주생활 단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반면, 주거관리 영역의 연구가 부족하므로 주생활단원 전체를 균형 있게 교육시키기 위해 이 영역의 연구도 이루어져야겠다. 한편, 일본의 연구경향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해에 걸쳐 연구하므로 연구결과가 축적될 수 있고 연구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결과를 축적하여 그 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겠다.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교과인식, 교수·학습과정안의 개발,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의 시행, 이의 교육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의 연구동향을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한국은 조사연구가 실험연구에 비하여 많았고, 일본은 조사연구와 실험연구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두 나라 모두 주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적용시키면서 일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생활단원의 인식을 살펴본 양적 조사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험연구나 질적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시킨다면 주거교육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 한층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에 대한 동향을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주 연구대상인 반면, 일본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이어서 중학생, 이에 더하여 초등학생과 대학생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초등학생은 학습의 연계 차원에서, 대학생은 교재개발과 교육평가를 하기 위한 비교집단으로 포함되었다. 교사대상의 연구는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아 대비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주생활단원의 연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연구대상의 범위는 한국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었다. 한국의 연구대상은 중학생과 중학교 교사가 중심축인데, 이는 연구자 소속과 관련한 조사의 용이성과 중학교 주생활단원의 비중에 기인한다고 보이며, 상대적으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은 연구대상으로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와 연계된 고등학교 주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생과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겠다. 연구대상자의 규모는 한국과 일본 모두 300명대 이하의 연구가 대체로 많았고, 대규모 연구는 일본이 한국에 비하여 분석집단의 크기가 매우 큰 편이었다. 대체로 조사연구는 분석집단의 크기가 크고, 실험연구는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여섯째, 분석방법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 모두 기술통계를 가장 많이 적용한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빈도와 백분율을 같이 제시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백분율만을 제시한 경향이 높았다. 또한 분산분석은 한국은 유의차가 나타난 집단에 대해 사후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진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분산분석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더라도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은 두 나라 모두 가장 적게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통계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논문 당 통계기법의 적용 개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3가지를 적용시킨 논문이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많은 통계기법을 적용시키고 있었다. 주거교육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통계기법을 적용시킨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이러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깊이 있는 해석을 줄 수 있는 질적연구가 요망된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거교육 연구의 향상을 위하여 먼저 주거교육 연구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단편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축적을 통한 깊이 있는 연구로 향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겠다. 연구의 성과는 교육과정 및 수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영역에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의 비중을 늘리고, 연구주제·단원별로 균형적인 연구가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주거관리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연구, 질적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 및 기법의 적용으로 주거교육 연구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아울러 중학교 교육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하여 교육단계별로 연계된 일관성 있는 주거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혁화 · 조재순(1995).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주생활 지도내용에 대한 요구도.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 7(1), 97-106.

김순안 · 조재순(2003). 고등학교 「기술 · 가정」 주거공간 꾸미기 단원 WBI 프로그램 개 발과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4), 37-53.

김영미 · 조재순(200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가족생활과 주거공간」 단원의 협동학습 수업지도안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39-53.

김윤자 · 박선희(2000). 청소년 학생의 학교 근린환경 이용과 불건전 행동 유형.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 12(1), 11-20.

김은정 · 조재순(2002). 인천광역시 중학생의 근린여가시설 이용실태와 인식도. 한국가정 과교육학회지, 14(3), 37-49.

김진영 · 곽경숙(2001). 중학생의 주거환경이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 회지, 13(2). 161-175.

노승옥 · 이완정(2000). 협동학습의 조 구성 방법이 가정과 수업에 미치는 영향-중학교 3 학년 「우리들의 주거공간」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2), 65-79.

류상희(2001). 가정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1-11.

박순자 · 신상옥(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 · 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65-76.

박현숙 · 조재순(2006). ICT활용 교수 · 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 분석: 고등학교 기술 · 가정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15-27.

소복례 · 조재순(2004). 경기 · 인천지역 중학교 가정실 실내 환경과 활용 실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127-140.

신용혜 · 조재순(1999).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 · 여 고등학생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47-57.

양정혜 · 신상옥(2003).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과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 대한가정학회지, 41(11), 61-72.

유미숙 · 박선희(1989). 중등 가정과 주생활 내용의 농촌지역 적합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43-52.

윤인경(2000). 한국 가정과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73-83.

윤인경 · 이정규 · 김성교(2005). 한국 가정과교육 연구 논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55-71.

이강분 · 최목화(1994).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 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59-71.

이계행 · 조재순(1996). 중학교 가정과 주생활 영역의 수업 지도안 개발-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중단원 중 실내 밝기와 온도 조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93-104.

이선희 · 조재순(2005). ICT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주거」 교수 · 학습과정한 개발 및 적 용-광주광역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101-115.

이은순 · 조재순(1993).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 방 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17-30.

이정규 · 김명자 · 모태화 · 박미정 · 박선영 · 조재순(2003). 중학교 기술 · 가정 교과서 주생 활단원 영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35-54.

이희준 · 조재순(2005). 중학교 가정과 교사가 인식하는 주생활 영역의 세 행동체계별 목 표 중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117-131.

진미윤 · 이유미 · 조인숙(2007).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103-113.

진상윤 · 곽경숙(2004).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 조사 연구-전 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81-94.

최창숙 · 조재순(1995a).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지도서의 내용 비교-주생활 영역을 중심 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1), 71-79.

최창숙 · 조재순(1995b). 고등학교 가정 교사용 지도서의 주생활 영역에 대한 교사의 요 구도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03-112.

龍川美樹(1989). 高校生の住居に對する價値判斷の檢討.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2(3), 77-81.

野 田 滿智子(1991a). わが國における家事實習施設の系譜(第2報)-歐美留學者達による近代 的家事實習施設導入への摸索-.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4(2), 9-13.

野 田 滿智子(1991b). わが國における家事實習施設の系譜(第3報)-近代的家事實習施設の普 及-.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4(3), 1-6.

野 田 滿智子(1991c). アメリカにおける家事實習施設の系譜(第1報)-家庭科教育生成期にお ける家事實習施設-.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4(3), 7-12.

長 澤 由喜子(1992). 兒童の生活經驗が住居觀形成に及ぼす影響.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5(3), 71-78.

高部和子・松田稔樹・東 節子外・內野紀子・長井 栴・岩田光江・吉野宏野・樓正純子 (1992). 小學校における家庭科學習技能の開發と指導方法の改善(第3報)-「住居 と家族」 領域の 調査を通して-.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5(3), 63-70.

野 田 滿智子(1993). アメリカにおける家事實習施設の系譜(第2報)-スミス.ヒュズ法 成立以 後の家事實習施設-.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6(2), 25-32.

關川千尋・木谷康子・北川敏子(1993a). 學校教育にお住居領域の教材開發について(1)-空間 構成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開發-.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6(2), 33-39.

關川千尋・木谷康子・北川敏子(1993b). 學校教育にお住居領域の教材開發について(2)-開發 教材妥當性檢討.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6(2), 41-47.

久 保 加津代(1994).「黃色いめがね」お用いた「住まいの安全」の授業. 日本家庭科教育 學會誌, 37(2), 45-51.

山 田 美由紀・高 木 貴美子(1994). 兒童.生徒の生活力育成への要因(1)-兒童.生徒の住生活 管理能力に關する實態から-.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7(3), 23-30.

野 田 滿智子(1995). アメリカにおける家事實習施設の系譜(第3報)-ニューディル期から第 二次世界大戰終了まで-.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8(2), 1-7.

山 田 美由紀, 高 木 貴美子(1996). 兒童.生徒の生活力育成への要因(2)-兒童.生徒の住生活 管理能力とゴミ問題に對る認識.行動との關聯-.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9(3), 35-42.

分校淑子・綿引伴子・山岸雅子(1997). 高等學校住居領域の教育內容方法の檢討(1)-研究の わく組みと授業案の作成-.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0(2), 63-69.

綿引伴子・山岸雅子・分校淑子(1997). 高等學校住居領域の教育內容・方法の檢討(2)-生徒 による授業評價-.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0(3), 57-62.

山岸雅子・分校淑子・綿引伴子(1998). 高等學校住居領域の教育內容・方法の檢討(3)-生徒 の變化からみる授業案の檢討-.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1(2), 65-71.

赤崎眞弓(1999a). 二次元イメジ擴散法による[家庭生活]領域の學習効果(1)-自己の住空間認 識-.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2(2), 47-53.

赤崎眞弓(1999b). 二次元イメジ擴散法による[家庭生活]領域の學習効果(2)-住空間を媒體と した生徒と家族員との相互理解による自己認識.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2(2), 55-61.

關川 千尋・速水多佳子・木谷 康子(2000). 中規模住宅の住み方式演習シミュレーション教 材の開發について(1)-開發教材組み立てとそのフィールド實態-. 日本家庭科教 育學會誌, 43(1), 17-24.

關川千尋・速水多佳子(2000). 中規模住宅の住み方式演習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 開發につ いて(2):演習結果を通してみた当教材の特性と練習成果決定要因. 日本家庭科教 育學會誌, 43(1), 25-32.

矢野由起(2002). 生活事象や生活行動に對する小學生の理解(2)-住生活および家庭生活分野 を中心に-.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5(1), 52-62.

田中 洋子・佐々木貴子・貴田 康乃(2002). 防災の視點をとり入れた家庭科[住生活]指導內 容提案のための基礎資料-指導內容案の作成-.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5(2), 282-293.

田中 洋子・佐々木貴子・貴田 康乃(2003). 防災の視點をとり入れた家庭科[住生活]指導內 容提案のための基礎資料-指導內容案の作成-.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5(4), 356-366.

高木 幸子・嶋村 洋子(2003). 技術・家庭(家庭分野)において住まい方を考えさせるカリ キュラムの開發.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6(1), 27-36.

山岸雅子・分校淑子・陣內 雄次(2003). まちづくり學習の授業開發(1)-授業展開および授業 內容・方法の檢討-.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6(1), 37-45.

分校 淑子・陣內 雄次・山岸雅子(2003). まちづくり學習の授業開發(2)-學習プロセスを中 心とした授業の檢討-.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6(1), 46-56.

山岸雅子・分校 淑子・陣內 雄次(2004). まちづくり學習の授業開發(3)-開發授業の汎用性 とまちづくり授業實施えの教師支援-.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6(4), 331-339.

黑光 貴峰・關川 千尋(2006). 學校教育住居領域教材開發(1)-コン

ピュータを使った住み方 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組み立て-.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8(4), 298-307.

關川 千尋・黑光 貴峰(2006). 學校教育住居領域教材開發(2)-コンピュータを使った住み方 シミュレーション教材の有效性の檢討-.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48(4),308-318.

桑畑美沙子・石橋滿里子(2000). 家庭科教育學會誌における授業分析論文動向. 日本家庭科 教育學會誌, 45(2), 172-180.

牧野カツコ(2002). 日本の中等教育における家庭科カリキュラムの現狀と課題.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학술대회지, 75-87.

妹尾理子・平正なか(2004). 住まい・住環境に關する教育研究の動向-日本建築學會大會梗概 集他, 關聯學會における論文分析から-. 日本家政學會誌, 55(5), 413-423.

<국문요약>

이 연구는 주거교육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거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와 일본가정과교육학회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창간 시점인 1989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주거교육 연구의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회지의 발행 현황은 한국과 일본의 모두 주거교육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에서의 주거교육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 연구영역은 한국에서는 교과인식과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가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연구와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주제・단원은 한국에서는 주생활 단원 전반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본은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일본 모두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시킨 연구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한국은 조사연구의 비율이 실험연구에 비하여 매우 높았고, 일본은 조사연구와 실험연구의 비율 차이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연구대상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비율이 높았고 일본의 경우 연구대상의 범위가 다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규모는 한국과 일본 모두 300명대 이하의 연구가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 분석방법은 두 나라 모두 기술통계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5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5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14일